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003. Vol. 14, No. 1, 55-71

연구논문

재무비율을 이용한 편모가계의 재정상태 평가

Evaluations of the Financial Status of Single Mother Households Using Financial Ratios

충북대학교 주거환경·소비자학과
곽민주·이희숙

Dept. of Housing Interior Design & Consumer Studie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Gawg, Minjoo · Lee, Hee-Sook

〈목 차〉

- | | |
|------------------|---------------|
| I.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문제 및 자료분석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financial status of single mother households by financial ratios. Data was drawn from Labor Panel Survey Data in 1999, and 198 single mother households were selected.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The levels of after-tax income, income per person, expenditure, expenditure per person, asset, pure asset, and debt of single mother households were lower than their counter-parts.
- 2) All financial ratios showed that both financial security and financial growth of single mother households were lower than their counter-parts. Especially, 22% of single mother households had the lower level of income than the lowest cost of living.

Key words: Single Mother Households, Financial Status, Financial Ratio

I.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편부모가계는 1980년에 전국적으로 74만 가계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에는 89만 가계, 1995년에는 96만 가계, 그리고 2002년에는 118만 가계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2002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편부모가계는 우리나라 전체 가계의 약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편모가계는 80.5%로 95만 가계가 이에 해당한다(통계청, 2003). 이런 편모가계의 증가원인으로는 질병, 교통사고, 산업화의 산물로 인한 중년 남성의 사망률 증가와 가치관의 변화, 여성 취업자의 증가에 의한 부부간 경제적 의존도 약화, 결혼에 대한 비현실적인 높은 기대, 이혼 후 스트레스와 갈등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낭만적인 이혼 신화에 의한 이혼의 증가현상으로 볼 수 있다(김경신, 김오남, 1997).

이러한 편모가계는 양부모가계가 경제적 부양 및 자녀양육, 가사노동 등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부의 상호역할 분담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조적, 기능적 측면에서 결손가족으로 분류될 수 있다(공세권, 조애저, 1995).

더욱이 편모가계가 경제적으로 빈곤층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은 노동시장에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남성과 여성사이의 임금 격차와 여성가장 가구주가 대체로 생산단순직이나 일용직 등 불완전한 고용상태에 있기 때문으로(이윤석, 1995), 재무상태는 매우 열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면에서 편모가계의 재무상태를 평가하는 일은 매우 의의 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편모가계에 관한 연구는 편모가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의 복지욕구나 생활실태를 다루거나, 편모가계의 스트레스 및 대처에 관한 연구, 편모가계의 재정적 자원과 심리적 복지를 다룬 연구 등이 있었으나 재무상태를 평가한 연구는 전무하다. 다만 소득 및 자출구조에 관한 연구는 문숙재·정순희(1995)가 있으나 편모가계의 표본이 서울지역에만 한정되어 있

으며, 양세정·이윤금(1999)의 연구 역시 부동산을 포함하는 실물자산에 대한 자료의 부재로 인해 가계의 총자산을 평가할 수 없어 편모가계의 경제구조를 이해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가계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소득과 지출 혹은 소비지출구조나 가계의 순자산 규모를 측정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이 방법은 측정과 그 결과의 상호비교가 용이한 반면 자산보유 구조를 파악할 수 없어 대부분의 자산을 고정자산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가계를 분석하는데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가계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두 가지 이상의 재정변수를 조합한 재무비율이다. 재무비율은 재무상담과 계획시에 진단과 정보의 도구가 되며, 재정상태의 분석과 논의의 시발점으로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 재정적 능력의 평가에 대한 판단을 쉽게 하기 위해 구성된 객관적 척도로서 각 가계의 재정상태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최윤지, 최현자, 1998).

이에 본 논문에서는 편모가계를 대상으로 하여 소득 및 소비, 저축 및 부채, 자산 등을 이용한 재무비율로 재무상태를 평가하고 나아가 이를 양부모가계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편모가계의 문제 특히 그들의 경제적인 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편모가계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 입안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재무비율이란 원래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비교하는데 사용되는 비율로서 재무제표상에 표기된 한 항목의 수치를 다른 항목의 수치로 나눈 것이다(박정식, 1997). 이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재무적 능력 평가에 대한 판단을 쉽게 하기 위해 구성된 객관적 척도로서 각 가계의 재무상

태 특성을 파악하는데 매우 효과적이고, 가계로 하여금 재정목표에 도달하도록 적절한 저축과 투자유형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러한 재무비율은 대차대조표와 소득지출상태표 상의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에 초점을 두어 연구자 혹은 연구목적에 따라 다르게 선택되었으며, 선행 연구에 나타난 주요 재무비율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Griffith(1985)는 가계재무상태 분석에 도움이 되는 16개의 재무비율을 제안하였는데 이들은 가계자산의 유동성 측정을 위한 7가지 재무비율과 부채부담을 측정하기 위한 4가지 재무비율, 그리고 재무구조 중 자산의 유형 비중을 측정하는 5 가지의 재무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Prather(1987, 1990)는 Griffith가 제안한 16개 재무비율의 표준을 세우기 위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가계의 재정 상태 파악을 위해 유용한 5개의 재무비율을 밝혔다. 즉, ① 월평균 지출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유동자산/월평균지출), ② 총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유동자산/총부채), ③ 비담보 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유동자산/비담보 부채), ④ 단기부채와 기타 부채의 연간 상환액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유동자산/단기부채와 기타 부채의 연간 상환액), ⑤ 자산의 순가치와 유형자산의 합에서 주택의 가치를 제한 것이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자산의 순가치+유형자산-주택의 가치)/순자산) 등이었다.

양정선(1997)은 우리나라 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가계재무비율의 종류와 기준에 대해 광범위하게 고찰하였으며, 총 10개의 재무비율을 제시하였다. 이 중 7개는 외국에서 상용되는 재무비율이며, 이 외에 우리나라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실물자산을 이용한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실물자산/총부채비율, 부채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나타내는 총부채/연간총소득비율, 주관적 최저생계비/월소득비율과 주관적 최저생계비/월지출비율을 포함하고 있다. 또 다른 우리나라 연구로서 최윤지·최현자(1998)는 우리

나라 농촌가계의 재무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4가지 유형(소득대비 소비비율, 유동성비율, 부채부담비율, 자본축적비율)에 포함된 9개의 하위 재무비율을 이용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재무비율과 평가를 위한 준거기준은 <표 1>과 같다.

특히 가계의 부채와 관련된 재무비율 연구로는 Devaney(1994)를 들 수 있으며, ① 유동성, ② 부채에 대한 자산의 비율(자산/부채), ③ 가처분소득에 대한 연간 총부채상환액의 비중(연간 총부채상환액/가처분소득)이 가계파산을 예측하는데 유의하다고 하였다. 또한 Garman과 Forgue(1994)는 보통 가계의 총자산이 증가하면 총부채도 증가하는데 적절한 양의 부채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부채의 사용은 지양해야 하며 이때 과도하다는 것은 절대적인 액수의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빚을 갚기 위한 자산과 소득에 기초한 비율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가계의 재정상태를 평가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재무비율로서 총부채 대 총자산, 연간 부채상환액 대 총소득, 연간부채상환액 대 연간 가처분 소득 등의 비율을 제시하였다. Langrehr와 Langrehr(1989)는 잔여소득 개념에 의한 부채부담 분석의 타당성을 주장하고자 잔여소득 비율을 이용하여 부채부담을 측정하였다. 잔여소득 비율이란 가처분소득에서 가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필수적·임의적 지출을 차감한데서 매달 부채상환액을 더한 것에 대한 매월 부채상환금액의 비율이다. 이 때 필수지출과 임의 지출을 고려한 이유는 식품구입이나 편의시설이용, 교통시설 이용 등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소비지출을 해야 하며 부채상환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을 결정할 때도 이러한 지출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잔여소득비율의 사용은 소득 중에서 어느 정도의 부채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부채의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가계의 재정상태를 평가한 Winger와 Frasca(1989)는 부채 이용시 적절한 수준 유지는 매우 중요하며

적절한 부채란 제때에 청구서를 갚을 수 있는 충분한 유동자산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유동자산 대 가처분 소득의 비율은 가계의 비상금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

반적으로 가처분 소득의 3~6개월분의 유동자산이 필요하며, 유동자산 대 단기부채의 숫자가 클수록 부채부담이 적으며 1.0을 넘으면 견실한 재정상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표 1> 주요 가계재무비율의 종류와 준거기준

Griffith(1985)		양정선(1997)		최윤자·최현자 (1998)		
재무비율	준거기준	재무비율	준거기준	재무비율		준거기준
유동자산/월지출액	2-6개월 이상	금융자산 / 월지출액	3.0 이상	소득대비 소비비율	월평균 소비지출 / 월평균 가처분소득	1.0미만
(유동자산+기타금융자산) / 월지출액	6.0이상	연간총지출 / 연간총소득	1.0 미만	유동성 비율	유동자산 / 월지출액	3.0초과
유동자산/총부채	0.1이상	금융자산 / 총부채	0.1 이상		유동자산 / 연간가처분소득	0.25 초과
(유동자산+기타금융자산) / 총부채	0.2-0.3이상	실물자산 / 총부채	1.0 이상		유동자산 / 순자산	0.25 초과
유동자산 / 비담보부채	1.0이상	총자산 / 총부채	1.0 이상	부채부 담비율	유동자산 / 총부채	0.1 초과
유동자산/순자산	-	총부채 / 순자산	1.0이상		총부채 / 순자산	1.0 미만
(유동자산+기타금융자산) / 순자산	-	금융자산 / 순자산	0.25이상		실물자산 / 총부채	1.0 초과
유동자산 / 연간부채 부담액	0.5이상	총부채 / 연간총소득	-	자본축 적비율	투자자산 / 순자산	0.2 초과
(유동자산+기타금융자산) / 연간부채부담액	1.0	주관적 최저생계비 / 월소득	1.0 미만		연간총저축액 / 연간가처분소득	0.1 초과
총부채 / 순자산	1.0이하	주관적 최저생계비 / 월지출	1.0 미만			
비담보부부채 / 순자산	0.4(최대)					
(자산의순가치+순유형자산) / 순자산	1.0					
(자산의순가치+순유형자산 -주택의가치) / 순자산	0.2					
(자산의순가치+순유형자산) / 고정된 현금자산	2.0(최소)					
순유형자산 / 순자산	-					
소득창출자산 / 순자산	-					

출처: 최현자·이희숙·양세정·성영애(2003).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4(1), 99-121.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편모가계의 재정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표 1>에 있는 최윤지·최현자의 연구에서 사용된 4가지 유형의 재무비율 - 소득에 대한 소비비율, 유동성 비율, 부채부담 비율, 자본 축적 비율 - 과 양정선의 연구에서 사용된 2가지 유형의 재무비율 - 요구대비 소득비율, 요구대비 소비비율 - 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각 비율의 준거기준에 근거하여 재정상태를 평가하였다.

III. 연구문제 및 자료분석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편모가계의 재무상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편모가계의 재무상태는 양부모 가계의 재무상태와 어떻게 다른가?

2.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이용한 자료는 「한국노동패널」로서, 이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전국 21,675조사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1998년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

국 비농촌지역에 거주하고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 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종단면조사(longitudinal survey)를 한 것으로 본 연구를 위해서는 1999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편모가계로는 가구주가 여성이며 배우자가 없고, 고등학교 재학 이하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계만을 추출하였고, 양부모가계의 경우에는 가구주가 남성이면서 배우자가 있고, 역시 고등학교 재학 이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계만을 추출하였는데, 이처럼 자녀를 가진 가계로 제한한 것은 편모가계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그 결과, 편모 198가계, 양부모 2,353가계가 분석에 이용되었으며, 자료분석은 SA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분석을 위해 빈도, 백분율, 표준편차를, 그리고 가계각각의 재무비율에 따른 재정상태는 빈도, 평균, t-test, χ^2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3. 변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표 2> 본 연구에 이용한 변수의 구성요소

변수	구성요소
소득	세금을 제외한 월평균 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 사회보험금, 기타 이전소득, 기타 소득
소비	월평균 생활비
부채	금융기관 부채, 비금융기관 부채, 개인적으로 빌린 돈, 전(월)세금 및 임대보증금 받은 것 미리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계돈, 기타 부채
순자산	총자산 - 총부채
유동자산	은행예금, 아직 타지 않은 계돈,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돈, 전세(월)세 및 임대보증금 낸 것, 기타 자산
투자자산	주식, 채권, 신탁, 보험금
실물자산	주거용 주택, 거주하고 있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나 건물, 임야, 토지의 시가

<표 3> 재무비율의 종류별 개념 및 준거기준

재무비율		개념	준거기준
소득대비 소비비율	Ratio1) 월지출액 / 월가처분소득	가처분소득에 대한 소비비율로 현재의 재무적 지위를 측정. 1.0을 초과하면 생활비가 가처분 소득을 초과함을 의미하므로 1.0 미만을 준거 기준으로 하고, 그 값이 작을수록 현재 소비를 충당하고도 충분한 여유자금이 있음을 의미함.	1.0 미만
유동성 비율	Ratio2) 유동자산 / 월지출액	실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했을 경우 월평균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의 적적량에 대한 통찰을 제공함. 각 가계는 최소한 3개월간의 지출을 견딜 수 있는 비상자금이 필요하다는 기준하에 월지출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이 3.0을 초과 할 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가계로 평가되며, 값이 클수록 월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유동자산이 충분하다고 평가함.	3.0 초과
	Ratio3) 유동자산 / 연간가처분소득	연평균 지출의 대리변수로 가처분 소득을 사용하여 측정한 유동성 비율. 일년의 1/4(3개월)이라는 의미로 0.25가 제시된 것임.	0.25 초과
	Ratio4) 유동자산 / 순자산	총순자산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중을 평가할 때 이용하며 구체적 재무목표 평가시 필요함. 장기적으로 실업 등으로 인하여 생활을 계속 할 수 없을 때, 가계소비를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평가해 주는데, 순자산의 25% 이상을 유동자산으로 갖고 있어야 유동성을 지닌 가계로 평가됨.	0.25 초과
부채부담 비율	Ratio5) 유동자산 / 총부채	유동자산으로 가계부채 상환에 관한 재정적 능력을 나타냄. 총부채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부채상환에 필요한 유동자산의 조달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함.	0.1 초과
	Ratio6) 총부채 / 순자산	가계의 자불능력을 나타내주는 지표임. 지표가 순자산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재무관리를 해야 하므로 1.0 미만이 기준으로 제시되며, 1.0을 초과하면 순자산 수준이 마이너스를 나타냄.	1.0 미만
	Ratio7) 실물자산 / 총부채	실물자산으로 총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냄. 1.0 미만일 경우 실물자산을 처분하여도 부채를 상환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파산상태에 있는 가계라고 할 수 있음.	1.0 초과
자본축적 비율	Ratio8) 투자자산 / 순자산	순자산에서 투자자산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 순자산에서 투자자산의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자본 축적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0.2 초과
	Ratio9) 연간총저축액 / 연간가처분소득	가계의 저축율을 나타내는 지표임. 연간 가처분 소득의 10% 이상을 저축해야 가계가 미래를 위한 자본 축적을 전전하게 지속 할 수 있음.	0.1 초과
요구대비 소득비율	Ratio10) 연간가처분소득 / 최저생계비	가계의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유지하기에 얼마나 충분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가구균등화지수!)를 고려하여 산출된 최저생계비로 소득을 나누어 준 값임. 가계의 규모와 가족구성원의 특성이 동시에 고려된 성인균등화지수가 적용된 최저생계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족의 규모만을 고려한 1인당 소득보다는 포괄적임. 1.0이면 가계의 소득이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수준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비율이 커질수록 최저생계 이상의 지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1.0 초과
요구대비 소비비율	Ratio11) 연간지출액 / 최저생계비	가계가 충분한 소비를 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임. 1.0을 초과하면 최저생계비 이상의 지출생활을 하는 가계라고 여겨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음.	1.0 초과

- 1) 소득 : 일정기간 동안 가계에 들어오는 화폐로 여기서 직접세를 제외하고 개인이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가처분 소득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금을 제외한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 사회보험금, 사회보험금을 제외한 기타 다른 이전소득, 기타 소득을 합계한 금액을 소득으로 이용하였다.
- 2) 소비(생활비) : 교육비, 주거비, 식품비, 보건 의료비, 교통통신비, 각종공과금 등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데 쓰는 금액으로 본 연구에서는 '월평균 생활비가 얼마인가'라는 질문에 답한 금액을 소비액으로 이용하였다.
- 3) 부채 : 현재의 구매를 위해 다른 사람이나 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관 부채, 비금융기관 부채, 개인적으로 빌린 돈, 전(월)세금 및 임대보증금을 받은 것,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계돈, 기타부채를 합계한 금액을 부채로 사용하였다.
- 4) 순자산 : 총자산과 총부채의 차액분을 말한다.
- 5) 유동자산 :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본 연구에서는 은행예금, 아직 타지 않은 계돈,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 전세·월세·임대 보증금 낸 것, 기타자산을 합한 금액을 유동자산으로 사용하였다.
- 6) 투자자산 :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저축 또는 투자한 자산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식, 채권, 신탁, 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투자자산으로 이용하였다.
- 7) 실물자산 :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거용 주택,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외의 다른 주택이나 건물, 임야, 토지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을 실물자산으로 사용하였다.
- 8) 재무비율 : 가계의 경제요소인 소득, 지출(소비), 자산(투자자산, 유동자산, 실물자산), 부채 등을 두 가지 이상 조합한 비율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윤지·최현자(1998)와 양정선(1997)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표 3>에 정리하였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Ratio1은 소득에 대한 초과 지출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로, 현재 소비(지출)액을 현재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값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Ratio1이 1.0 미만이면 적어도 현재의 가처분소득으로 현재의 소비를 충당하고 있는 가계이며, 그 값이 작을수록 현재 소비를 충당하고도 충분한 여유자금이 있음을 의미한다. Ratio2는 유동자산을 월지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실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했을 경우 월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의 적절량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각 가계는 최소한 3개월의 지출을 견딜 수 있는 비상자금이 필요하다는 기준하에 월

<표 4>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단위 : 천원)

거주지역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이상
중·소도시	520,984	716,579	901,357	1,024,843	1,156,441

자료 : 보건복지부(2001).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주 : 거주지역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본 논문의 이용자료에는 거주지역이 생략되어 있어 중·소도시 지역 최저생계비를 선택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선택하였다.

- 1) 가구균등화지수 : 가계 재정상태 평가시, 성인에게 분배되는 소득을 1로 보았을 때 자녀에게 분배되는 소득의 비율은 1보다 작은 어떤 비율로 보아, 가족의 크기와 구성원의 특성도 모두 고려하여 측정하는 도구.

지출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이 3.0을 초과할 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가계로 평가되며, 값이 클수록 월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유동자산이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Ratio3은 유동자산을 연간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이때 연간가처분소득은 연평균 지출의 대리변수로 이용되었다. 따라서 Ratio3은 Ratio2와 동일한 맥락에서 일년의 1/4기간(즉 3개월)동안 실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했을 경우 월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의 적정량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따라서 0.25를 초과할 경우, 1년의 1/4기간의 의미로 직업을 상실한 후에도 현재의 소득수준을 3개월간 계속할 수 있는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숫자가 클수록 안정성 있는 재정 상태로 평가된다. Ratio4는 유동자산을 순자산으로 나누어 얻은 값으로 순자산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중을 의미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실업 등으로 인하여 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때, 가계소비를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유동자산을 순자산의 25% 이상 갖고 있을 때 장기적으로 유동성을 지닌 가계라고 할 수 있다는 기준 하에 Ratio4의 값이 0.25를 초과할 때 재정적으로 안정된 가계로 평가된다. Ratio5는 유동자산을 총부채로 나눈 값으로 유동자산으로 가계부채 상환에 관한 재정적 능력을 나타낸다. 이는 총부채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부채상환에 필요한 유동자산의 전달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기준 하에 Ratio5의 값이 0.1을 초과하면 재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Ratio6은 총부채를 순자산으로 나누어 준 값으로 가계부채의 지불능력을 나타낸다. 즉, 총부채액이 순자산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재무관리를 해야한다는 기준 하에 Ratio6의 값이 1.0 이상이면 순자산 수준이 마이너스를 나타내게 되며, 가계 부채 지불능력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Ratio7은 실물자산을 총부채로 나눈 값으로

실물자산으로 총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Ratio7의 값이 1.0 미만일 경우 실물자산을 처분하여도 부채를 상환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파산상태에 있는 가계라고 할 수 있다. Ratio8은 순자산에서 투자자산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순자산에서 투자자산의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자본 축적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Ratio9는 가계의 저축을 나타내는 지표로, 연간 가처분소득의 10% 이상을 저축해야 가계가 미래를 위한 자본 축적을 건전하게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Ratio10은 가계의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유지하기에 얼마나 충분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가구균등화지수²⁾를 고려하여 산출된 최저생계비로 소득을 나누어 준 값이다. 이 비율은 가계의 규모와 가족구성원의 특성이 동시에 고려된 성인균등화지수가 적용된 최저생계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족의 규모만을 고려한 1인당 소득보다도 포괄적이면서, 여러 가계의 각기 다른 소득이 최저생계비라는 공통분모를 사용한 비율로 변환되었기 때문에 특성과 규모가 다른 두 가계의 소득 충분성을 비교 가능하게 한다. Ratio10의 값이 1.0이면 가계의 소득이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수준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비율이 커질수록 최저생계 이상의 지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Ratio11은 Ratio10에서 총소득 대신 총지출을 가구균등화지수를 고려하여 산출한 가구당 최저생계비로 나누어 준 값으로, Ratio11 역시 1.0을 초과하면 최저생계비 이상의 충분한 소비를 하는 가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표 5>제시하였다. 가구주의 연령은 편모가계의 경우, 50

2) 가구균등화지수 : 기계 재정상태 평가시, 성인에게 분배되는 소득을 1로 보았을 때 자녀에게 분배되는 소득의 비율은 1보다 작은 어떤 비율로 보아, 가족의 크기와 구성원의 특성도 모두 고려 하여 측정하는 도구.

재무비율을 이용한 편모가계의 재정상태 평가

세 이상이 59.1%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40대가 37.4%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양부모가계의 경우에는 40대가 40.5%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50세 이상이 32.0%로 높은 분포를 보여, 편모, 양부모가계 모두

가구주의 연령이 40세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을 보면 편모가계의 경우 초등학교(37.9%), 고등학교(26.3%), 중학교(18.7%), 무학(12.6%), 대학교(4.0%), 전문대학교(0.5%)의

<표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가계)

구 분	편모가계		양부모가계	
	구 분	빈도(%)	구분	빈도(%)
가구주 연령	20대(20~29)	1(0.5)	20대(20~29)	28(1.2)
	30대(30~39)	6(3.0)	30대(30~39)	618(26.3)
	40대(40~49)	74(37.4)	40대(40~49)	954(40.5)
	50세 이상	117(59.1)	50세 이상	753(32.0)
	계	198(100.0)	계	2353(100.0)
가구주 교육수준	무 학	25(12.6)	무 학	23(1.0)
	초등 학교	75(37.9)	초등 학교	245(10.4)
	중 학 교	37(18.7)	중 학 교	378(16.1)
	고등 학교	52(26.3)	고등 학교	1056(44.9)
	전문대학교	1(0.5)	전문대학교	141(6.0)
	대 학 교	8(4.0)	대 학 교	418(17.7)
	대학원석사		대학원석사	78(3.3)
	대학원박사		대학원박사	14(0.6)
	계	198(100.0)	계	2353(100.0)
동거가족수	2	85(43.0)	3	536(22.8)
	3	85(43.0)	4	1352(57.5)
	4	26(13.1)	5	390(16.6)
	5	2(1.0)	6	67(2.8)
	6		7	8(0.3)
	계	198(100.0)	계	2353(100.0)
주거형태	자가	93(47.0)	자가	1325(56.3)
	전세	55(27.8)	전세	752(32.0)
	월세	43(21.8)	월세	219(9.3)
	기타	7(3.4)	기타	57(2.4)
	계	198(100.0)	계	2353(100.0)

순으로 나타났으나, 양부모가계의 경우에는 고등학교(44.9%), 대학교(17.7%), 중학교(16.1%), 초등학교(10.4%), 전문대학교(6.0%), 대학원 석사(3.3%), 무학(1.0%), 대학원 박사(0.6%)의 순으로 나타나 양부모가계의 가구주가 편모가계의 가구주보다 더 높은 교육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동거 가족수는 편모가계의 경우에는 동거 가족수가 2인과 3인이 각각 4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양부모가계의 경우에는 4인이 5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3인이 22.8%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주거형태로는 편모, 양부모가계 모두 47.0%, 56.3%로 '자가'가 가장 많았으나, 양부모가계가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단순저량으로 측정한 편모가계의 재정상태

다음은 각 가계의 재정상태를 단순저량을 통해 측정한 결과로 소득과 소비는 <표 6>에 총자산, 부채, 순자산은 <표 7>에 요약 정리하였다.

1) 소득과 소비

가계소득은 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는데 가장 보편적인 도구로, 특히 소득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은 더욱 그러하다. 연간 가처분소득액은 편모가계(12,242천원)가 양부모가계(22,739

천원)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간 가처분소득액은 가계의 규모가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가계의 규모에 따라 과대평가나 과소평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1인당 소득을 살펴보았으며, 편모가계의 1인당 소득(4,607천원) 역시 양부모가계(5,742천원)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살펴보았듯이 양부모가계가 편모가계보다 높은 맞벌이의 가능성이나 혹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구주의 교육수준 등의 요인이 일부 영향을 끼쳤으리라 생각한다.

소비지출은 소득의 변동보다 적으며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계의 재정상태를 평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가계의 소비지출이 가계의 소득보다 재정상태를 평가하는데 더 이상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계의 소비지출 역시 매우 중요하다. 편모가계의 연간 지출액은 8,913천원으로 양부모가계(14,958천원)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1인당 소비지출 역시 편모가계가 3,371천원으로 양부모가계(3,762천원)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보였다.

양부모가계에 대한 편모가계의 소득, 소비지출 수준의 상대적 수준을 쉽게 평가할 수 있는 상대비율을 살펴보면, 소득, 소비 모두 1.0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편모가계가 양부모가계보다 낮은

<표 6> 편모가계의 소득과 소비

(단위 : 천원)

구 분	편모가계		양부모가계		t-value	상대비율 (편모/양부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인당 소득	4,607	3,309	5,742	7,186	4.29***	0.80
연가처분소득액	12,242	8,713	22,739	28,261	12.33***	0.54
1인당 지출액	3,371	1,841	3,762	1,933	2.86**	0.90
연간 지출액	8,913	5,081	14,958	7,938	15.25***	0.60

*p<0.05 **p<0.01 ***p<0.001

재무비율을 이용한 편모가계의 재정상태 평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상대비율이 1.0이면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가 같은 수준의 재정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고 1.0보다 낮으면 편모가계가 양부모가계보다 더 낮은 수준을 의미한다 (표 6 참조).

2) 자산

총자산은 유동자산과 실물자산, 투자자산을 합한 금액으로 편모가계의 가계당 평균 총자산은 43,716천원으로 양부모가계(83,924천원) 보다 유의하게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보유한 자산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편모가계의 경우 유동자산 29.1%, 투자자산 3.9%, 실물자산 67.0%로 총자산 중 실물자산이 가장 높은 구성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양부모가계에 비하여 유동자산 구성율이 더 높은 반면, 투자자산 구성율은 낮은 특성을 보였다.

유동자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유동자산 수준은 양부모가계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유동자산 중 전세, 월세 등의 보증금이 양쪽가계 모두 가장 높은 구성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나, 금액수준에 있어서는 편모가계는

〈표 7〉 단순저량으로 측정한 편모가계의 재정상태

(단위 : 천원)

구 분	편모가계			양부모가계			t-value
	평 균	S.D.	%*	평 균	S.D.	%*	
총자산	43,716	65,858	①+②+③=100.0	83,924	117,040	①+②+③=100.0	7.97***
유동자산 - ①	12,727	20,272	100.0(29.1)*	22,121	36,758	100.0(26.4)*	3.08***
은행예금	3,866	12,679	30.4	9,766	27,602	44.1	3.00**
아직 타지 않은 계	15	154	0.1	139	1,271	0.6	2.17*
빌려준 돈	716	7,122	5.6	809	6,747	3.7	-0.87
보증금	8,129	14,603	63.9	11,259	19,377	50.9	3.01**
기타	1	2	0.0	148	4,427	0.7	1.55
투자자산 - ②	1,715	4,400	100.0(3.9)*	5,451	36,969	100.0(6.5)*	5.88***
주식, 채권, 신탁	338	2,220	19.7	2,002	22,163	36.7	4.03***
보험	1,377	3,163	80.3	3,448	29,171	63.3	4.42***
실물자산 - ③	29,274	61,719	100.0(67.0)*	56,352	98,017	100.0(67.1)*	6.50***
주거용 주택	28,664	61,238	97.9	47,533	72,578	84.4	5.13***
주택 이외의 부동산	610	5,329	2.1	8,819	61,478	15.6	4.63***
총부채	7,917	24,199	100.0	20,479	51,046	100.0	7.29***
금융기관 부채	3,674	10,965	46.4	12,365	41,038	60.4	8.01***
비금융기관 부채	249	2,638	3.1	546	4,284	2.7	-0.23
개인적으로 빌린 돈	1,475	6,469	18.7	2,111	10,503	10.3	1.15
전세금 받은 것	2,455	14,947	31.0	5,282	20,513	25.8	3.23**
불입할 계돈	41	493	0.5	67	866	0.3	2.20*
기타	23	247	0.3	108	3,184	0.5	-0.27
순자산	35,799	63,027		63,445	105,847		5.64***

*p<0.05 **p<0.01 ***p<0.001

()* 속의 숫자는 총자산에 대한 유동자산, 투자자산, 실물자산의 비율을 나타냄.

8,129천원(63.9%), 양부모가계는 14,603천원(50.9%)으로 두 가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중 편모가계의 전월세 보증금 비중이 높은 것은 편모가계가 양부모가계에 비해 자가의 비율이 낮은 것에 기인하며, 금액수준이 낮은 것은 전월세의 규모가 작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은행예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은행예금 역시 두 가계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편모가계 3,866천원(30.4%)가 양부모가계 9,766천원(44.1%)보다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 결과는 전월세 보증금이 거주공간소비를 위한 필수 자원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실질적인 자원의 유동성은 금융자산이라고 평가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편모가계의 유동성의 문제점을 타나내 주고 있다.

투자자산 수준 역시 편모가계가 양부모가계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구성비율의 특성은 편모가계의 주식, 채권, 신탁은 가계당 평균 338천원, 보험은 1,377천원의 수준을 보였다. 양부모가계의 주식, 채권, 신탁은 2,002천원, 보험은 3,448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모두 양부모가계가 높은 수준을 보이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보험의 경우 양부모가계가 편모가계보다 2배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미래 경제적 위기에 대한 대처가 편모가계보다 상대적으로 더 견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물자산은 주거용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동산 시가를 합한 금액으로 편모가계의 경우 97.9%, 양부모가계의 경우 84.4%를 ‘주거용 주택 시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3) 총부채

편모가계의 가계당 평균 총부채는 7,917천원이고 양부모가계는 20,479천원으로 양부모가계가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총부채의 구성요소 중 금융기관의 부채를 살펴보면 편모가계(46.4%)의 경우 양부모가계(60.4%)에 비하여 매우 낮은 구성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편모가계가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결과로서 여성가구주의 금융기관 이용의 제한을 일부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4) 순자산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액을 뺀 차입금을 말하는 것으로 편모가계의 가계당 평균 순자산은 35,799천원으로 양부모가계(63,445천원)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2. 재무비율을 이용한 편모가계의 재정상태

소득대비 소비비율, 유동성 비율, 부채부담비율, 자본축적 비율, 요구대비 소득 비율 및 요구대비 소비비율과 같은 재무비율을 통해 각 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였으며 결과는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다.

1) 소득대비 소비비율

소득대비 소비비율은 현재의 재무적 위치를 측정하는 것으로 준거기준 1.0 미만을 만족하는 편모가계는 62.1%, 양부모가계는 76.7%로 나타났으며 χ^2 검증 결과 편모가계가 양부모가계보다 만족하는 가계의 비율이 유의하게 낮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출수준에 비해 가처분소득 수준이 높은 가계가 편모가계인 경우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한다.

2) 유동성 비율

유동성 비율 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본 연구에서는 전세, 월세 보증금을 유동성 자산에 포함시켰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과를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이미 살펴보았듯이 편모가계의 유동자산 구성요소 중 보증금의 비율이 63.9%로 양부모가계의 50.9%에 비하여 높으며, 보증금의 특성이 가계에 따라서는 실물자산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유동성 비율과 관

재무비율을 이용한 편모가계의 재정상태 평가

련된 결과를 해석할 때 편모가계인 경우 양부모 가계에 비해 나타난 결과보다 더욱 재정상태가 낫을 수 있다는 점이다.

먼저 단기유동성지표-Ratio2(유동자산/월지출액)의 준거기준을 만족시키는 편모가계는 62.1%, 양부모가계 64.7%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단기유동성지표-Ratio3(유동자산/연간가처분소득)의 준거기준을 만족시키는 가계는 편모가계 48.8%, 양부모가계 58.9%로 나타났으며 편모가계가 양부모가계보다 준거기준을 만족시키는 가계의 비율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는 편모가계의 경우 양부모가계에 비해 소득 없이 최소 3개월간 유지할 수 있는 가계의 비율은 비슷하지만, 가처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가계의 비율은 유의하게 낮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장기유동성지표-Ratio4(유동자산/순자산)의 준거기준을 만족시키는 편모가계는 48.9%, 양부모가계는 43.9%로 나타났으며 두 집

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부채부담비율

부채부담비율 역시 유동성비율처럼 3개의 비율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유동자산을 사용하여 일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가계의 재정상태를 나타내주는 Ratio5(유동자산/총부채)의 준거기준인 0.1 이상을 만족하는 편모가계는 67.2%, 양부모가계 70.7%로 각각 나타났으며,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Ratio6(총부채/순자산)은 가계의 부채지위를 나타내주는 지표로 준거기준 0.1 이하를 만족하는 편모가계는 96.9%, 양부모가계 90.8%로 각각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순자산보다 보유 부채액이 더 많아 모든 자산을 처분하여도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파산상태인 가계는 양쪽 집단 모두 비교적 적지만, 편모가계수가 유의하게 더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8〉 재무비율로 측정한 편모가계의 재정상태 평가

(단위 : 가계(%))

재 무 비 율	준거기준	편모가계			양부모가계		χ^2
		% meeting	% no meeting	% meeting	% no meeting		
소득대비 소비비율	Ratio1	1.0 미만	62.1	37.9	76.7	23.3	11.7***
유동성 비율	Ratio2	3.0 초과	62.1	37.9	64.7	35.3	0.5
	Ratio3	0.25 초과	48.8	51.2	58.9	41.1	6.3*
	Ratio4	0.25 초과	48.9	51.1	43.9	56.1	1.9
부채 부담 비율	Ratio5	0.1 초과	67.2	32.8	70.0	30.0	0.6
	Ratio6	1.0 미만	96.9	3.1	90.8	9.2	8.6**
	Ratio7	1.0 초과	38.4	61.6	50.1	49.9	9.9**
자본 축적 비율	Ratio8	0.2 초과	5.1	94.9	10.4	89.6	5.9***
	Ratio9	0.1 초과	32.8	67.2	49.8	50.2	20.9***
요구대비 소득 비율	Ratio10	1.0 초과	77.8	22.2	90.1	9.9	28.3***
요구대비 소비비율	Ratio11	1.0 초과	71.7	28.3	84.7	15.3	22.7***

*p<0.05 **p<0.01 ***p<0.001

Ratio7(실물자산/총부채)은 실물자산만을 이용하여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제시해 주며, 준거기준 1.0 이상을 만족하는 편모가계는 38.4%, 양부모가계 50.1%로 각각 나타나 많은 가계(편모가계 61.6%, 양부모가계 49.9%)가 주택을 처분하였을 때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며, 나아가 편모가계가 양부모가계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 편모가계의 부채부담비율을 살펴본 결과, Ratio6을 제외하고 양부모가계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편모가계가 상대적으로 부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많이 가질 수 있음과 동시에 부채상환능력이 낮음을 시사하고 있다.

4) 자본축적 비율

가계의 재무구조 내에서 미래의 재정적 목표를 위한 자산 축적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두 종류의 세부 재무비율을 이용하였다. 먼저 Ratio8(투자자산/순자산)은 순자산에서 투자자산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준거기준 0.2 이상을 만족한 편모가계는 5.1%, 양부모가계 10.4%로 각각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편모가계가 양부모가계보다 낮은 비율을 보였다. Ratio9(연간총저축액/연간가처분소득)는 연간 가처분소득 중에서 연간 총저축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준거기준 0.1 이상을 만족하는 편모가계는 32.8%, 양부모가계 49.8%로 각각 나타났고, χ^2 검증 결과 Ratio9를 만족시키는 양부모가계가 편모가계에 비해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편모가계가 양부모가계에 비하여 자본축적을 위한 경제적 여

력이 부족함을 시사하고 있다.

5) 요구대비 소득비율

요구대비 소득비율(가처분소득/최저생계비)은 가계의 소득이 충분한지를 나타내주는 것으로 준거기준 1.0 이상을 만족하는 편모가계는 77.8%, 양부모가계 90.1%로 각각 나타났으며 χ^2 검증 결과 양부모가계의 비율이 편모가계보다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중요한 것은 편모가계 중 최저생계비를 유지할 만큼의 가처분소득 수준이하를 갖고 있는 가계가 22.2%나 된다는 의미로 정부의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6) 요구대비 소비비율

요구대비 소비비율(지출액/최저생계비)은 현재 지출수준이 충분한지를 나타내주는 것으로 준거기준 1.0 이상을 만족하는 편모가계는 71.7%, 양부모가계 84.7%로 각각 나타났으며, χ^2 검증 결과 양부모가계가 편모가계보다 이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계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편모가계 중 29.3%, 양부모가계 15.3%가 현재 지출수준이 최저생계 지출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특히 편모가계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관심이 요구된다.

7) 주관적 경제상태 평가

편모가계가 주관적으로 현재 자신의 경제상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9>에 정리하였다.

<표 9> 주관적 경제상태 평가

(단위 : 가계(%))

주관적 판단	있다	없다	계	χ^2
편모가계	142(71.7)	56(28.3)	198(100.0)	13.9***
양부모가계	1368(58.1)	985(41.9)	2353(100.0)	

*p<0.05 **p<0.01 ***p<0.001

<표 10> 편모가계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한 지출비목

(단위 : 가계(%))

지 출 비 목	편모가계	양부모가계
식비(식료품비)	63(44.5)	279(20.4)
교육비	32(22.5)	648(47.4)
각종 빚(채무)의 원리금 상환	31(21.8)	317(23.2)
의료비	9(6.3)	37(2.7)
주거비(관리비, 월세 등)	5(3.5)	43(3.1)
기타	2(1.4)	44(3.2)
계	142(100.0)	1368(100.0)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라고 대답한 편모가계는 71.7%, 양부모가계 58.1%, ‘없다’라고 대답한 편모가계는 28.3%, 양부모가계 41.9%로 각각 나타났으며, χ^2 검증 결과 편모가계가 양부모가계보다 자신 스스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소비지출 비목 중 어느 부분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편모가계의 경우 44.5%가 식비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교육비, 각종 빚(채무)의 원리금 상환, 의료비, 주거비(관리비, 월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양부모가계의 경우에는 교육비가 47.4%로 가장 많았고, 각종 빚(채무)의 원리금 상환, 식비, 주거비(관리비, 월세 등), 의료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양부모가계가 교육비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보고 있는 것과는 달리, 편모가계에서 가계의 가장 긴요한 필수재의 특성을 가진 식비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보아 편모가계가 양부모가계보다 의식주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에서 조차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가 더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두 가계 모두 교육비에 대해 부담스럽게 느끼는 가계가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가계 대부분이 가계의 경제적 여유와 상관없이 사교육비에 대해 매우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노동패널」3차년도(1999년도) 자료를 가지고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의 재정상태를 분석, 비교하였으며, 이것을 기초로 하여 결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편모가계의 소득과 소비수준은 양부모가계보다 가처분소득, 1인당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1인당 소비지출 모두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총자산의 경우에도 편모가계가 양부모가계 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총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자산유형을 살펴보면, 양쪽가계 모두 실물자산 구성율이 67%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우리나라 가계의 일반적인 특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채의 경우, 편모가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부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 금융기관의 부채가 가장 높은 구성비율을 보였다. 특히 금융기관의 부채수준과 구성비율 면에서 편모가계가 양부모가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이는 편모가계의 여성가구 주가 금융기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제한에서 일부 비롯된 결과로 해석된다.

둘째, 소득대비 소비비율(월지출액/월가처분소득)의 경우,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편모가계 비율보다 양부모가계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 소비지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보이는 편모가

계비율이 높았다. 또한 유동성비율의 경우, (유동자산/월지출액)는 양 가계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유동자산/연간가처분소득)은 편모가계가 양부모가계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 소득 없이 최소 3개월간 가처분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가계가 적음을 나타냈다.

부채부담비율을 통한 편모가계 경제상태는 양 부모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부채상환능력이 낮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재무상태 평가 결과는 편모가계의 경제적 안정성이 매우 낮음을 시사하고 있다.

자본축적비율은 편모가계의 만족율이 양부모 가계에 비하여 매우 낮은 상태를 나타내어 편모 가계의 미래 경제적 성장이 양부모가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요구대비 소득비율과 요구대비 소비비율을 보면 편모가계 중 최저 생계비 이하의 수준을 하고 있는 가계가 20% 이상이나 나타나고 있어, 정부의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주관적 경제상태 평가를 보면, 편모가계가 양부모가계보다 자신 스스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비지출 비목 중 '식비'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어, 가장 기본적인 생활에서 조차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편모가계의 재정상태가 양부모가계에 비하여 모든 측면 -소득대비 소비비율, 유동성 비율, 부채부담비율, 자본축적비율, 요구대비 소득비율, 요구대비 소비비율-에서 열악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우선, 편모가계의 낮은 소득 수준의 개선을 위해, 편모가계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양부모가계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편모가계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직업 훈련 및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소득확대 측면에서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편모가계의 경우 금융기관과 같은 대외적인 경제활동을 하는데 여성이라는 이유와 경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며, 이런 제약이 사라질 수 있도록 사회적 의식 변화가 요구된다.

셋째, 많은 편모가계가 재무비율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의 소득과 소비생활을 하고 있는 가계를 위한 정부의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본 연구가 미성년자를 가진 편모가계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측면에서 이들 가계에 대한 사회복지 측면의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

【참 고 문 헌】

- 공세권 · 조애저(1995). 편부모 가구의 생활실태와 복지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경신 · 김오남(1997). 편모가족의 가족자원, 대처와 스트레스. 대학가정학회지, 35(4), 211-228.
- 박정식(1997). 현대재무관리. 다산출판사.
- 보건복지부(2001). <http://www.mohw.go.kr>.
- 양세정 · 이윤금(1999). 양부모가계와 편모가계의 가계경제구조 비교. 소비자학 연구, 10(4), 93-108.
- 양정선(1997). 산술적 재량과 재무비율 측정을 중심으로 한 가계의 재정상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윤석(1995). 도시지역 여성가장가구의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주인숙(1998). 편모가정의 가계경제상태 평가. 성명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 최윤지 · 최현자(1998). 재무비율을 이용한 농촌 중·노년기 가계의 재정상태 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83-96.

- 최현자 · 이희숙 · 양세정 · 성영애(2003). 재무비율
을 이용한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4(1), 99-121.
- 통계청(2003). <http://www.nso.go.kr>
- DeVaney, S. (1994). Usefulness of Financial Ratios
as Predictions of Household Insolvency.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5, 5-23.
- Griffith, R. (1985). Personal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 A Modest Beginning In Langreher
(Ed). The Proceedings of AFCPE, 123-131.
- Garman, E. T., & Forgue, R. E. (1994). Personal
Finance, 4rd Ed., Boston : Houghton
Mifflin Co.
- Langrehr, V.B. & Langrehr, F. W. (1989). Measuring
the Ability to Repay : The Residual Income
Ratio.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3(2),
393-406.
- Prather, C. G. (1987). Ratio Analysis of Personal
financial Statements : Household Norm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SU.
- Prather, C. G. (1990). The Ratio Analysis Technique
Applied to Personal Finance Statements:
Development of Household Norm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 53-70.
- Wingert B. J., & Frasca, R. R. (1989). Personal
Finance. 2nd Ed., Merrill Publishing Co.